

안녕하세요. 카잔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주일에는 계속 바짐이 통역을 해주고 있고 현지 자매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현지인들도 교회를 자기들의 생각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굽기나 밭의 나무를 베고 마른 풀들, 주변의 쓰레기를 같이 치웠습니다. 이런 대청소하는 날을 수보뜨닉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앞으로 5월 2일 부활절 주일에 초청모임을 하는데, 친구들을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당분간 알파코스를 못하니까 부활절날 초청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나 봅니다.
또 5월 8~10일은 이곳 승리의날로 쉬는 날인데 젊은 청년들 위해 작은 교회 세 개가 모여서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일은 때로 벅차기도 하고 한편 복음을 전하기 조심스러운 곳이라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쌓고 때가 되면 알파코스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타타르스탄 주선민 손소미아-

몰도바를 위하여

샬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봄이 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또한 소망해봅니다.

(몰도바 소식)
몰도바는 현재 확진자 240,886명이고, 사망자 5,369명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약 800명 이상의 확진자와 30명 전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나라이기에 보다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스크도 잘 사용할 수 없기에, 당분간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가 제공해 준 AstraZeneca 백신을 3월부터 접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도바가 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 조금씩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저는 지난 2월 27일 서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수로 언어(영어) 훈련을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월 28일) 서울에서 내려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수에서 영어 훈련에 참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잘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William Carry)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작은 도전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도하며 나아가다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며 힘을 내고자 합니다!

<기도제목>

- 1. 묵상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 2. 언어(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 3. 주님이 예비해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 4. 몰도바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음적인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5월 23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3명 자체파송 74%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샬롬 ~~
항상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곳 필리핀 선교지는 자연재해(태풍과 지진, 화산폭발)와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선교현장은 하루 평균 10,000~15,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속하게 발생해서 일체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지역이동제한과 야간통행금지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대면 예배와 리더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지금은 일체의 모임을 금하고 있기에 개별적으로 교회리더들과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리잘주 바라스 지역은 인터넷 상황이 좋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대면예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feeding 사역을 할때 빵과 음료, 비타민을 함께 나눠주고 특별심방 가정은 쌀과 계란을 주는데 받을때마다 고마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끼지만 현재는 선교후원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락다운이 조금 완화되어 지역이동제한이 풀리면 다시 조심스럽게 대면예배를 비롯하여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리더교육은 성경읽기와 암송 그리고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feeding 사역은 매우 중요한데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항상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보니 이곳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원천 봉쇄하여 개인적인 선교팀 방문도 할 수 없어 선교후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잊지않고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으로 희망을 갖고 맡겨주신 선교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 자유롭게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 1.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해마다 찾아오는 재해 (태풍, 지진, 화산 등) 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니 기도부탁드립니다.
- 3. 예배 진행을 위해 TV 모니터와 연동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니 기도부탁드립니다.
- 3. 제자교육을 위한 물품과 장학생 후원자가 필요하니 기도부탁드립니다.
- 4. 현재 feeding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린이들을 위한 feeding 사역을 위한 재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마을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앞으로 예배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부지 또는 새로운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약 5~7천만원정도)기도부탁드립니다.
- 6. 한국에 있는 가족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송보령집사(87세), 아내: 박미경선교사 - 암 수술후 한국에 정기검사 받으러 한국에 들어 갔다가 선교지에 복귀를 못했습니다)
- 7. 박성용선교사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나가면 선교지로 복귀할 수가 없어 보조기를 점검할 수 없어 너무나 불편합니다. 새로 구입해야하는데 기도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1년이 넘는 팬데믹으로 각처에서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안에서 모두 넉넉히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곳 베네수엘라도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3월부터 브라질에서 넘어온 변형바이러스로 상황이 악화되자, 잠시 열렸던 도시간의 이동도 다시 닫히고, 락다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봅니다. 늘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역을 나눕니다.

글로벌 리더십 스쿨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추었던 3기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지난 2월22일부터 7주간 온라인으로 사역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도시들 방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도시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다 방문하지 못했지만, 재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3월 첫 주에 감사하게도 멀리 15시간 이상 떨어진 Mracaibo와 Coro에 방문하여 신학교 목사님들 교회와 학생(졸업생, 재학생) 들을 만나 귀한 교제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지 목사님들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며, 학생들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되었습니다. 특별히 1기의 한 학생은 식당을 하는 자기 가족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들을 매주 말씀과 음식으로 섬기며 전도해서 길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중 5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 리더십 스쿨 학생들과 함께 침례식을 섬기고 오후에는 길거리 교회 성경공부 마지막날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인 Coro에서는 신학교 2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대학생 모임, 목회자 모임, 일대일 성경공부 졸업식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1년전에 시작한 일대일을 통해 120명의 졸업자를 보며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목격하는 귀한 시간였습니다. 3기 학생들은 비록 온라인으로 교육받았지만, 학습훈련처럼 하기 위해 아침 6시 큐티와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조별모임, 찬양, 성공공부를 12시까지 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특별한 방법의 훈련을 통해 66명의 3기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오며 순종한 대학생들이 정말 대견합니다. 앞으로 3기 학생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3기 훈련 강의>



<길거리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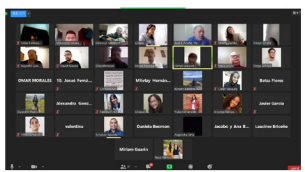
온라인 성경통독

4월 첫째주에는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아침8시-12시) 온라인으로 신약통독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포함 4개의 나라도 참석하여 평균 약 1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통독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인터넷이 안되는 곳은 전화로 연결을 하여 통독을 완독한 곳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네수엘라와 남미가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함께 더 많은 통독으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

각 도시의 중보센터에 모여 기도했던 중보기도 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모임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ZOOM) 모여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네수엘라의 여러 도시 뿐 아니라, 9개의 남미 나라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기회에 중,남미 모든 나라들이 모이는 중보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 나라를 초청한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중,남미 전체에 주시는 주님의 부흥을 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중보사역>

베네수엘라와 우리들 이야기

브라질에서 넘어온 변형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3가정의 감염으로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서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되도록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며 저희만 사역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방은 전기와 휘발유, 가스 문제로 교통 가운데 있는데, 길어지는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더 어려워진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네수엘라에 부워 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약도 살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이 투병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사 치유해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락다운과 확진자들의 증가로 콜롬비아 사랑의 불꽃도 다시 미뤄지고 계획한 많은 사역들도 미뤄졌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준이는 작년에 입학한 중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친구들이 보고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를 세대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동역자님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계속 사역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와 현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베네주엘라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샬롬..

터키의 최자스, 이훤ㅇ 선교사입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와 안부의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터키에 가게 되었지만, 아내의 암으로 인해 파송 5년 만에 귀국하여 암 치료를 받게 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 속에서도 변함 없는 기도와 사랑, 물질로 저희 가정과 함께해 주시니...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 아내 이훤ㅇ 선교사는 터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고, 분당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유방암 4기로 왼쪽 유방암과 겨드랑이 임파절에 암이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9월에는 왼쪽 골반 엉치뼈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 9-10) 아내 입술에서 고백하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난 1월 30일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전이 된 엉치뼈 암의 활성도는 떨어져 치료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무런 증세가 없어도 5년간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를 중단할 경우. 보이지 않고 자리 잡지 않은 암이 있기에 분명히 암이 전이 되어 힘든 상황을 맞이 할 것이라 확신하며 치료를 계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1년 6개월의 치료도 힘 들었는데, 5년 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며, 견뎌야 할지,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들을 찾던 중, 작년 제주도에서 자연치유를 하며 암 투병을 하는 지인의 권유, 제주도에서 한 달을 자연치유와 영육간의 회복을 소망하며 2월 2일 가게 되었지만, 지인은 저희 가정이 제주도 도착 5일 후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 옴으로 공동체를 찾게 되었고, 매일 새벽 기도와 아침, 점심 식사를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오후에는 제주의 산과 들을 걸었습니다. 3주 동안 공동체 원장님과 교제는 영적으로 저희를 깨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식사와 운동은 육체가 강건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루고자 했던 소망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치유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4주간의 생활을 마무리 할 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실 것인지 귀 기울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내는 기도 가운데 터키로 돌아가 사역을 할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치료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비전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터널에서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처가 집으로 돌아와 저희 가정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옴으로 공동체에서 했던 아침식사(자연식)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점심은 공동체 생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해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 제주도 생활 중반부터, 아내는 진통제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엉덩이의 통증도 50% 이상 줄어들어 좀 더 많은 기도와 말씀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체력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던 가정(한국인 남편, 터키인 아내)이 코로나로 인해 일하던 여행사 파산으로 작년 8월 귀국하여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 터키로 돌아가 같이 사역할 이 가정을 방문,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지만,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 두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위의 가정과의 교제를 통해, 저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이 비전들을 이룰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며,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섬기던 교회와 공동체 형제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이라는 고통에서도 복음으로 생명을 소망하고 낳을 때 저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이훤ㅇ 선교사가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길 기도합니다.
2. 터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이란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4. 잠시 멈춰진 터키 신학교가 회복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5. 함께 사역할 이스ㅏ & Ebru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베일릭듀즈 평안교회 성도들과 청년 & 청소년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7.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보게 하며, 이들을 양육하며 교회 지도자로 세우길 기도합니다.

-터키 최자스, 이훤ㅇ 선교사-

1. 네팔 이예신 선교사-혈액암으로 아직투병중이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검진겸 한국에 들어오셔서 치료 중 이십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5월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길 기도합니다.
5. 중국 박OO-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시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회복과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